

(2026년 9월 1일 화요일 5면)

지정수 송파구의회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한 현안 점검 나서

송파구의회 지정수 의원이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관련 민원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파구의회 지정수 의원(장지·위례동) 주관으로 주민대표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 송파구청 담당자 및 LH 사업담당자, 감정평가 법인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① 주택 유형별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 ② 국·공유지 및 LH·SH 등 공공기관 소유 토지·주택 현황과 사업 과정에서의 처리 방식, ③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관



리·감독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우선 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다가구·단독주택 소유자와 다세대주택 소유·관리자 간 감정평가의 형평성 문제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산정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부 주민들은 주택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의 차이와 산정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